

내용:김균진 대책위 자보

발신:제 10대 총여학생회 (준)

수신:각 단대 관심있는 분들

내 몸은 내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아직 내 몸은 내 것이 아닌가 보다. 지하철에서 학학대는 남자들은 제쳐두자. 강의실에서 너무나 쉽게 던지는 교수님의 성적 농담은 말 실수란다. 여자가 적은 수업은 여자가 적어서 야한 수업이 되어도 괜찮고 여자가 많은 수업은 여자가 많아서 야한 얘기를 해도 농담이 될 수 있단다. 교수에게 항의하는 남학우가 영웅이 될 때 대드는 여학우는 못 생긴게 성격만 드센 여자라고 낙인 찍힌다. 여 대학원생이 교수의 손길을 거부하면 학점이 떨어지고 과정이 길어진다. 건물 안에 여성화장실 수가 부족해도 급하면 다른 층, 다른 건물로 가란다. 가끔씩 여자 화장실에서 힐끔대며 들락이는 수위아저씨도 대놓고 넘겨다보는 남자들에 비하면 인간이다. 심각한 토론에서 여자는 당연히 밀려나고 담배피우는 여자는 이유없이 미움받는다. 학내 주요자리를 여자가 차지하는건 남자들이 못나서이지 여자들이 잘 나서는 아니란다. 학교 행사로 생기는 MT, OT, 수련회, 환영회 등 언제든지 모여 술마시는 자리에서는 남자들을 위한 노래가 울려 퍼지고 여자들은 술마시는 가운데에서도 몸가짐을 조심하게 챙길 수 있는 철인이 되어야 한다.

모두들 또 그 얘기냐고 지겨워한다.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는 그 아픔도 무시하고 참아내려한다. 진리의 전당. 순수과 이상의 공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학의 이름도 산산조각나 발 밑에 깔린지 오래다. 결국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나보다. 최소한 지금, 이곳에서는.

우리는 일상화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억압을 거부한다.

당한 자의 서러움이 아니다. 당할지도 모르는 자의 두려움은 더욱 아니다. 때린 자에 대한 분노이며 때릴지도 모를 자에 대한 깨우침이다. 왜 우리는 크게 소리내지 못하는가. 왜 말하고 외치며 울부짖지 않는가. 이제 최소한 연세대내의 성폭력에 대해서 만큼은 증언을 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여학우들이 현실을 알고 고통받으면서도 소리내지 못하는 것은 학내 성폭력의 가해자들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권력 때문이다. 교수와 강사들은 학점과 대학원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주무기이다. 선배와 동기들은 학내 사회생활을 좌우할 수 있다. 귀엽던 후배조차 덤벼들 때는 그 비참함을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들에 의한 성적 괴롭힘은 단순한 성폭력 이상이다. 여학우를 위한 학내 환경 조성을 방해하며 여성 교육권마저 위협한다.

「교수 성폭력 근절과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 위원회」는 이제 지켜지는 여학우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려는 여학우들과 함께하려 하다.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없애고 학칙제정과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내기에 나설 것이다. 늘 맞았기 때문에 계속 맞아도 된다고,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의 손을 들어 당신을 일으켜라!!

▶ 제보를 받습니다.

학내에서 겪는 교수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경험 (강의실 내외의 물리적, 정신적, 언어폭력 등 여성 비하와 대상화와 관련된 모든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을 총여학생회실(361-3645)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첫 단추입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과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준)

내 몸은 내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는 아직 내 몸은 내 것이 아닌가 보다. 지하철에서 헉헉대는 남자들은 제쳐두자. 강의실에서 너무나 쉽게 던지는 교수님의 성적 농담은 말 실수란다. 여자가 적은 수업은 여자가 적어서 야한 수업이 되어도 괜찮고 여자가 많은 수업은 여자가 많아서 야한 얘기를 해도 농담이 될 수 있단다. 교수에게 항의하는 남학우가 영웅이 될 때 대드는 여학우는 못생긴게 성격만 드센 여자라고

낙인 찍힌다. 여 대학원생이 교수의 손길을 거부하면 학점이 떨어지고 과정이 길어진다. 건물 안에 여성화장실 수가 부족해도 급하면 다른 층, 다른 건물로 가란다. 가끔씩 여자 화장실에서 힐끔대며 들락이는 수위아저씨도 대놓고 넘겨다보는 남자들에 비하면 인간이다. 심각한 토론에서 여자는 당연히 밀려나고 담배 피우는 여자는 이유없이 미움받는다. 학내 주요자리를 여자가 차지하는건 남자들이 못나서이지 여자들이 잘 나서는 아니란다. 학교 행사로 생기는 MT, OT, 수

런회, 환영회 등 언제든지 모여 술마시는 자리에서는
남자들을 위한 노래가 울려퍼지고 여자들은 술마시는
가운데에서도 몸가짐을 조신하게 챙길 수 있는 철인
이 되어야 한다.

모두들 또 그 얘기냐고 지켜워한다. 너무 많이 맞아서
이제는 그 아픔도 무시하고 참아내려한다. 진리의
전당. 순수와 이상의 공간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
학의 이름도 산산조각나 발 밑에 깔린지 오래다. 결국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나보다. 최소한 지금, 이곳에

서는.

**우리는 일상화된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과 억압을 거부한다.**

당한 자의 서러움이 아니다. 당할지도 모르는 자의 두려움은 더욱 아니다. 때린 자에 대한 분노이며 때릴지도 모를 자에 대한 깨우침이다. 왜 우리는 크게 소리내지 못하는가. 왜 말하고 외치며 울부짖지 않는가.

이제 최소한 연세대내의 성폭력에 대해서 만큼은 종언을 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여학우들이 현실을 알고 고통받으면서도 소리내지 못하는 것은 학내 성폭력의 가해자들의 암묵적, 또는 명시적 권력 때문이다. 교수와 강사들은 학점과 대학원 과정에 대한 영향력이 주 무기이다. 선배와 동기들은 학내 사회생활을 좌우할 수 있다. 귀엽던 후배조차 덤벼들 때는 그 비참함을 말 할 수 없을 정도다. 이들에 의한 성적 괴롭힘은 단순한 성폭력 이상이다. 여학우를 위한 학내 환경 조성

을 방해하며 여성 교육권마저 위협한다.

「교수 성폭력 근절과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 위원회」는 이제 지켜지는 여학우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려는 여학우들과 함께하려 하다.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없애고 학칙제정과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내기에 나설 것이다. 늘 맞았기 때문에 계속 맞아도 된다고,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의 손을 들어
당신을 일으켜라!!**

▶ 제보를 받습니다.

학내에서 겪는 교수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경험
(강의실 내외의 물리적, 정신적, 언어폭력 등 여성
비하와 대상화와 관련된 모든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을 총여학생회실(361-3645)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여러분을 일으키는
첫 단추입니다.

**교수 성폭력 근절과
여성 교육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